

大田大學校 附屬 韓方病院 小兒科에 來院한 患者에 대한 實態 分析

韓在敬* · 金允姬**

*大田大學校 附屬 韓方病院 小兒科 專攻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小兒科

Health Care Utilization of Pediatrics Outpatients in the Oriental Hospital

Jae-Kyung Han · Yun-Hee Kim

*Dept. of Pediatr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Daejeon, Korea.

Objectives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ttitude toward the oriental hospital among 100 pediatric outpatients.

Methods : A questionnaire abou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the reason of choice or alteration was implemented.

Results :

1. In distribution of sex & age, 60% was men and 40% women. 45% was between 2 and 6 years old.
2. In determinant factor for using Oriental medicine, 43.8% was tolerance increase of the western medicine and 33.0% was recommended by others.
3. In distribution of disease & therapeutic method, 62.5% was respiratory disease and 11.7% gastrointestinal disease. 64.3% was treated with oriental after Western medical therapy and 20.9% only Oriental medical care.
4. The changing causes for using Oriental after Western medicine. 35.9% was ineffective affect and 26.5% side effect.
5. The preference for using Oriental medicine, 41.6% was respiratory disease and 21.0% gastrointestinal disease.
6. The peculiarity of Oriental medicine compared with western medicine. 36% was effectiveness on the cronic disease and 14% for fundamental remedy

- 7. The predominance disease in Western medicine compared with Oriental medicine, 28% was operation, 18% common cold and 15% inflammatory disease
- 8. The questions about Oriental medicine, 22% was medical materials' sanitation and place of origin, 18% harmness or not administered during long time.
- 9. The controversial point of Oriental medicine, 33.5% was expensive price and 27.7% difficulty of taking medicine.
- 10. In satisfaction degree of Oriental medicine, 69% was satisfied and 19% was very satisfied.

Conclusions : Considering the above results, we have concluded that proper recognition about Oriental Pediatric medicine will be needed among patients.

Key Words : Oriental Pediatric medicine, Concomitant user

I. 序 論

소아는 출생 후 성인이 되기까지 부단한 성장과 발육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 과정은 단순한 양적인 증가뿐 아니라 형태와 기관의 질적인 변화를 포함하게 된다¹⁾. 또한 “古語曰 寧醫十丈夫莫醫一婦人, 寧醫十婦人莫醫一小兒²⁾”라 하여 예로부터 소아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어려움을 말하였고. 이는 소아가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라 소아 고유의 생리와 병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소아과의 의료는 특수한 의료의 성질을 잘 이해해야 하며 아울러 소아 의료의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최근 공기오염, 과도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인스턴트 식품의 과다 섭취, 아파트와 같은 주거 환경의 변화 등 과학의 발달과 생활 환경의 변화는 인체내 질병의 다양화를 가져왔고 이와 함께 소아과 영역의 질병도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최근까지 한방 소아과는 소아과만의 단독적인 진료 영역을 구축하는데 약간은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던 경향이 있다.

이것은 국민들의 의료 이원화에 따른 전반적인

한방 치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보약 위주의 진료 영역의 선택과 양·한방의 불필요한 중복 진료 등에서 기인한 점도 있지만 아직까지 한방 소아과의 치료 영역 등에 대한 명확한 개념 설정 부족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유럽과 미국에 비해 심각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해열제와 항생제의 오남용과 이러한 약물 남용에 따른 소아들의 면역력 저하 및 알레르기 질환의 급증으로 인하여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한방 소아과의 의료 이용 실태를 살펴보고자 본원 한방 소아과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방 병원에 내원한 동기와 내원한 질병, 동일 증상에 대해 양방 이용과의 관련성, 한방 치료에 대한 궁금증이나 의문점,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II. 調查對象 및 方法

1. 調查對象

조사대상은 2001년 7월 2일부터 2001년 11월 31일까지 대전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소아과에 내원

하여 5회 이상 치료를 받은 환자 100예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2. 調査方法

방법은 의무기록지와 소아과에 내원한 환자(연령이 너무 어린 경우 보호자가 답하도록 함) 설문지를 토대로 환자의 성별, 연령, 한방 병원에 내원한 동기와 질병, 동일 증상에 대해 양방 이용과의 관련성 등을 조사하였으며 다각적인 질문을 통하여 그 결과를 검토 분석하였다.

- 1) 성별 및 연령별 분포
- 2) 한방 병원에 내원한 동기
- 3) 증상에 따른 상병별 내원 환자 분포 및 동일 증상에 대한 양방 이용분포
- 4) 동일 증상을 주소로 치료 방법을 전환한 사유
- 5) 소아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질환 중 한방 치료에 대한 선호도
- 6) 양방치료와 한방치료와의 차이점(양방 치료와 비교하여 한방 치료의 특징)
- 7) 한방치료와 비교하여 양방치료가 우월하다고 느껴지는 질환
- 8) 소아를 한방으로 치료하는 경우 궁급점
- 9) 소아에게 한방 치료를 하는 경우 겪게 되는 문제점
- 10) 한방치료에 대한 만족도

Ⅲ. 調査結果

1. 성별 및 연령별 분포

총 100명의 환자 중에서 성별 발생빈도는 남자가 60명(60%), 여자가 40명(40%)로 남녀의 성비는

1.5 : 1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2세 이하의 남녀비는 2.3 : 1로 남아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연령의 분포는 2-4세가 23명(23%), 4-6세가 22명(22%)의 순으로 많았다(Table 1).

Table 1. Distribution of Age & Sex

| | Male | Female | Total(%) |
|-------------------|------|--------|----------|
| Less than 1 year | 3 | 6 | 9 |
| 1-2 years | 15 | 2 | 17 |
| 2-4 years | 13 | 10 | 23 |
| 4-6 years | 12 | 10 | 22 |
| 6-8 years | 5 | 6 | 11 |
| More than 8 years | 12 | 6 | 18 |
| Total | 60 | 40 | 100 |

2. 한방 병원에 내원한 동기

한방 병원에 내원한 동기로는 지속적인 양방 치료로 인한 부작용 및 아이의 면역력 저하가 걱정되어서가 49예(43.8%)로 가장 많았으며, 주위 사람의 권유를 받고 내원한 경우가 37예(33.3%)로 그 다음 순이었으며, 한방 치료가 우수하다고 인정되어서 내원한 경우도 23예(20.5%)로 비교적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다(중복응답)(Table 2).

Table 2. Determinant Factor for Using Oriental Medicine

| Determinant Factor | Number | % |
|--|--------|------|
| Recommended by others | 37 | 33.0 |
| Magazine or Network | 3 | 2.7 |
| Tolerance Increase of the Western Medicine | 49 | 43.8 |
| Excellence of Oriental Medicine | 23 | 20.5 |
| Total | 112 | 100 |

Table 3. Distribution of Using Oriental and Western Medical Clinic by Disease

| Disease | After Western medicine | Only Oriental medicine | Concomitant use | Total | |
|------------------|------------------------|------------------------|-----------------|-------------|-------------|
| | Number(%) | Number(%) | Number(%) | | |
| Respiratory | Common cold | 38 (71.7) | 10 (18.9) | 5 (9.4) | 53 (29.1) |
| | Sinusitis | 25 (92.6) | 1 (3.7) | 1 (3.7) | 27 (14.8) |
| | Rhinitis | 11 (57.8) | 4 (21.1) | 4 (21.1) | 19 (10.4) |
| | Asthma | 6 (66.7) | 2 (22.2) | 1 (11.1) | 9 (4.9) |
| | Pneumonia | 2 (100.0) | 0 (0) | 0 (0) | 2 (1.1) |
| | Otitis | 4 (100.0) | 0 (0) | 0 (0) | 4 (2.2) |
| | | | | | |
| Gastrointestinal | Abdominalgia | 3 (50.0) | 2 (33.3) | 1 (16.7) | 6 (3.3) |
| | Vomiting | 2 (40.0) | 2 (40.0) | 1 (20.0) | 5 (2.8) |
| | Diarrhea | 3 (50.0) | 1 (16.7) | 2 (33.3) | 6 (3.3) |
| | Constipation | 1 (50.0) | 1 (50.0) | 0 (0) | 2 (1.1) |
| | Dyspepsia | 0 (0) | 0 (0) | 1 (100.0) | 1 (0.6) |
| | Anorexia | 0 (0) | 1 (100.0) | 0 (0) | 1 (0.6) |
| | | | | | |
| Nervous | Febrile convulsion | 3 (100.0) | 0 (0) | 0 (0) | 3 (1.6) |
| | Epilepsy | 1 (100) | 0 (0) | 0 (0) | 1 (0.6) |
| | Tic | 0 (0) | 1 (50.0) | 1 (50.0) | 2 (1.1) |
| | Night crying | 6 (60.0) | 1 (10.0) | 3 (30.0) | 10 (5.5) |
| | Easily frightened | 0 (0) | 2 (66.7) | 1 (33.3) | 3 (1.6) |
| | | | | | |
| Dermatologic | Atopic dermatitis | 8 (47.1) | 5 (29.4) | 4 (23.5) | 17 (9.3) |
| | Congenital fever | 0 (0) | 0 (0) | 2 (100.0) | 2 (1.1) |
| | | | | | 19 (10.4) |
| etc. | Bell's palsy | 0 (0) | 2 (100.0) | 0 (0) | 2 (1.1) |
| | Feeble child | 0 (0) | 2 (100.0) | 0 (0) | 2 (1.1) |
| | Nocturia | 2 (66.7) | 1 (33.3) | 0 (0) | 3 (1.6) |
| | Transverse myelitis | 1 (100.0) | 0 (0) | 0 (0) | 1 (0.6) |
| | Growth disturbance | 1 (100.) | 0 (0) | 0 (0) | 1 (0.6) |
| | | | | | |
| Total | 117 (64.3) | 38 (20.9) | 27 (14.8) | 182 (100.0) | 182 (100.0) |

3. 증상에 따른 상병별 내원 환자 분포

증상에 따른 상병별 내원 환자의 분포를 살펴 보면 감기, 축농증, 비염, 천식, 중이염 등의 호흡기계 질환이 114예(62.5%)로 가장 많았으며, 복통, 구토, 설사, 소화장애 등의 소화기계 질환이 21예(11.7%), 수면 장애, 이경, Tic, 간질 등의 정신 신경계 질환과 아토피 피부염, 태열 등의 피부 질환이 각각 19예(각각 10.4%)의 순으로 많았다(중복 응답).

동일 증상에 대한 치료 방법(한방, 양방 등)을 살펴보면 내원하게 된 증상을 주소로 양방 치료 후 한방으로 전환한 경우가 117예(64.3%)으로 가장 많았으며, 처음부터 한방 치료만을 한 경우가 38예(20.9%), 한방과 양방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가 27예(14.8%)의 순이었다(중복응답)(Table 3).

Table 4. Changing Causes for Using Oriental Medicine

| Causes | Number | % |
|---|--------|------|
| Ineffective Affect | 42 | 35.9 |
| Lessened Resisting Power | 27 | 23.1 |
| Side Effect of Western Medicine | 31 | 26.5 |
| For the Fundamental Remedy | 5 | 4.3 |
| Limitation of Western Medical Treatment | 4 | 3.4 |
| No Answer | 8 | 6.8 |
| Total | 117 | 100 |

4. 동일 증상을 주소로 치료방법을 전환한 사유

동일 증상을 주소로 양방 치료 후 한방으로 전환한 환자들의 전원 사유로는 지속적인 치료에도

Table 5. Preference for Using Oriental Medicine

| Disease | Number(%) | Total(%) | |
|------------------|-----------------------|------------|----------|
| Respiratory | Common cold | 43(16.4) | |
| | Sinusitis or Rhinitis | 36(13.7) | |
| | Asthma | 30(11.5) | |
| Gastrointestinal | Abdominalgia | 14(5.3) | |
| | Diarrhea | 13(5.0) | |
| | Vomiting | 14(5.3) | |
| | Anorexia | 12(4.6) | |
| | Dyspepsia | 2(0.8) | |
| | | | 55(21.0) |
| Nervous | Convulsion disease | 26(9.9) | |
| | Somnipathy | 19(7.3) | |
| | Easily frightened | 5(1.9) | |
| Dermatologic | Dermatitis | 24(9.2) | 24(9.2) |
| Urogenital | Nocturia | 2(0.8) | 2(0.8) |
| etc. | Palsy | 4(1.5) | |
| | Hyperhidrotic | 15(5.7) | |
| | etc. | 3(1.1) | |
| Total | 262(100.0) | 262(100.0) | |

효과가 없어서가 42예(35.9%)로 가장 많았고, 소화장애 등의 부작용으로가 31예(26.5%), 지속적인 양방 치료에 따른 인체내 저항력 저하가 27예(23.1%)의 순으로 많았다(중복응답)(Table 4).

5. 소아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질환 중 한방 치료에 대한 선호도

소아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질환 중 한방 치료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본 결과 감기, 비염, 축농증 등의 호흡기계에 대한 선호도가 109예(41.6%)로 가장 많았으며,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계에 대한 선호도가 55예(21.0%), 경련성 질환, 수면 장애 등의 정신 신경계에 대한 선호도가 50예(19.1%)의 순으로 많았다(중복 응답)(Table 5).

Table 6. Peculiarity of Oriental Medicine (compared with Western Medicine)

| Peculiarity | Number | % |
|---|--------|-----|
| Decrease of Recurrence ratio | 8 | 8 |
| Effectiveness on the Chronic disease | 36 | 36 |
| Increase of Immunity | 6 | 6 |
| Decrease of Tolerance | 8 | 8 |
| Improving Physical Condition | 4 | 4 |
| Decrease of Side effect | 4 | 4 |
| Useless at the Acute periods | 2 | 2 |
| Fundamental Remedy | 14 | 14 |
| Unawareness(Difference with Each Disease) | 2 | 2 |
| No answer | 16 | 16 |
| Total | 100 | 100 |

6. 양방 치료와 한방 치료와의 차이점(양방 치료와 비교하여 한방 치료만의 특징)

양방 치료와 비교하여 한방 치료의 특징으로 생각되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만성적인 질환에 효과가 있다가 36명(36%)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료 속도는 약간 느리나 근본적인 치료라 생각된다는 경우가 14명(14%), 재발을 저하, 지속적인 치료에도 내성이 약하다로 대답한 경우가 각각 8명(각각 8%)의 순이었다(Table 6).

7. 한방 치료와 비교하여 양방 치료가 우월하다고 느껴지는 질환

여러 질환 중 한방 치료와 비교하여 양방 치료가 우월하다고 느껴지는 질환에 대한 응답으로는 수술을 요하는 질환이 28명(28%)으로 가장 많았고, 단순 감기가 18명(18%), 염증성 질환이 15명(15%), 종양이 8명(8%)의 순으로 많았다(Table 7).

Table 7. Predominance Disease in Western Medicine

| Disease | Number | % |
|----------------------|--------|-----|
| Operation | 28 | 28 |
| Tumor | 8 | 8 |
| Ophthalmic disease | 2 | 2 |
| Infectious disease | 5 | 5 |
| High fever | 3 | 3 |
| Inflammatory disease | 15 | 15 |
| Allergic disease | 6 | 6 |
| Common cold | 18 | 18 |
| Emergency Condition | 7 | 7 |
| No answer | 8 | 8 |
| Total | 100 | 100 |

8. 소아를 한방으로 치료하는 경우 궁금점

소아를 한방으로 치료하는 경우 전반적인 한방에 대한 궁금점으로는 한약 재료의 생산지 및 질, 위생상태에 대한 궁금점이 22명(22%)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기간 사용 가능 유무가 18명(18%), 복용 시기가 빠른 경우 아이의 지능 저하가 걱정된다는 경우도 14명(14%)을 차지하였다(Table 8).

Table 8. Questions about Oriental Medicine

| Question | Number | % |
|--|--------|-----|
| Intelligence Degeneracy administered at the Infant Period | 14 | 14 |
| Harmness administered during Long time | 18 | 18 |
| Side effect of Herb medicine | 8 | 8 |
| Medical materials' Sanitation and Place of Origin | 22 | 22 |
| Remedy Decrease in Concomitantly Using Medical Prescription's Detail | 6 | 6 |
| Safekeeping and Available period of the Herb medicine | 4 | 4 |
| Possible Time for beginning Herb medicine take | 6 | 6 |
| Usefulness of Folk remedy | 2 | 2 |
| Fatness after Herb remedy | 1 | 1 |
| No answer | 13 | 13 |
| Total | 100 | 100 |

9. 소아에게 한방 치료를 하는 경우 겪게 되는 문제점

소아에게 한방 치료를 하는 경우 겪게 되는 문

제점으로는 가격이 비싸다가 64예(33.5%)으로 가장 많았으며, 먹이기 힘들다가 53예(27.7%),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가 52예(27.2%)의 순으로 많았다(중복응답)(Table 9).

Table 9. Controversial Point of Oriental Medicine

| Controversial Point | Number | % |
|-------------------------------|--------|------|
| Difficulty of Taking Medicine | 53 | 27.7 |
| Expensive Price | 64 | 33.5 |
| Slow Effectiveness | 52 | 27.2 |
| Inconvenience of Vaccination | 15 | 7.9 |
| Nothing | 7 | 3.7 |
| Total | 191 | 100 |

10. 한방치료에 대한 만족도

치료 결과에 따른 환자의 만족도에서는 만족이 69명(69%)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만족이 19명(19%)의 순으로 많았다(Table 10).

Table 10. Satisfaction Degree of Oriental Medicine

| Satisfaction Degree | Number | % |
|---------------------|--------|-----|
| Very Satisfaction | 19 | 19 |
| Satisfaction | 69 | 69 |
| Not Changed | 11 | 11 |
| Dissatisfaction | 1 | 1 |
| Total | 100 | 100 |

IV. 고찰

고대 兒科의 四大疾病은 麻, 痘, 驚, 疳의 영역으로 분류하였으나 최근에는 마진과 두진은 예방접종의 발달로 거의 자취를 감추었고 감병은 식생

활의 발달로 거의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즉 과거에는 감염증과 영양장애가 소아 질병의 주요 요인이었으나 경제 생활의 향상과 예방 접종 발달로 급격히 감소되었으며, 반면에 최근에는 고영양 식, 운동 부족으로 인한 소아 성인병의 증가, 바이러스성 감염, 알레르기성 질환, 악성 종양, 선천성 기형 등이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또한 외적이고 미적인 면에 대한 관심으로 소아 비만과 성장 장애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³⁾.

하지만 우리 나라의 의료 실정은 유럽과 미국에 비해 심각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항생제와 해열제 등의 오남용으로 소아들의 면역력, 즉 자연 치유력을 저하시키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과거에는 수험생과 성인에 많았던 각종 알레르기성 질환이 시간이 갈수록 발병 연령이 낮아져 현재는 영유아를 비롯한 소아 알레르기 환자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체질을 개선시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근본적인 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의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최근 들어 한방 소아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서 한방 소아과만의 단독적인 진료 영역의 구축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연구 분야 및 의료 이원화되어 있는 우리 나라 의료 실정상 환자들의 중복 진료 및 의료 기관 선택의 적절성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2001년 7월 2일부터 2001년 11월 31일까지 대전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소아과에 내원하여 5회 이상 치료를 받은 환자 100예를 대상으로 의무기록지와 소아과에 내원한 환자 설문지를 토대로 환자의 성별, 연령, 한방 병원에 내원한 동기와 질병, 동일 증상에 대해 양방 이용과의 관련성 등의 한방 의료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였으며 다각적인 질문을 통하여 그 결과를 검토 분석하였다.

성별 및 연령별 분포에 있어서는 총 100명의 환

자 중에서 성별 발생 빈도는 남자가 60명(60.0%), 여자가 40명(40.0%)으로 남녀의 성비는 1.5 : 1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연령별 분포는 2-4세가 23명(23.0%)으로 가장 많았고, 4-6세가 22명(22.0%), 8세 이상이 18명(18.0%), 1-2세가 17명(17.0%), 6-8세가 11명(11.0%), 1세 미만이 9명(9.0%)을 차지하였다(Table 1).

이는 이⁴⁾ 등의 연구에서 2-6세가 53.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원인으로는 생활 환경의 변화로 놀이방, 탁아소와 같은 집단 생활을 시작하는 연령이 점차 낮아져 소아과에 내원하는 연령이 2-6세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고, 1세 미만의 연령 분포가 낮은 이유로는 한방에서의 신생아 관리가 미흡한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방 병원에 내원하게 된 동기는 지속적인 양방 치료로 인한 부작용 및 아이의 면역력 저하가 걱정되어 내원한 경우가 49예(43.8%)로 가장 많았으며, 주위 사람의 권유가 37예(33.0%), 한방 치료가 우수하다고 인정되어서가 23예(20.5%), 잡지, 신문 및 방송을 통하여가 3예(2.7%)를 차지하였다(Table 2). 이는 김⁵⁾ 등의 주위 사람의 권유로 인한 경우가 66.7%, 본인 스스로 결정한 경우가 33.3%를 차지한 결과와는 달리 소아 환자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지속적인 양방 치료에 대한 면역력 저하, 부작용 등에 대한 걱정으로 스스로 한방 치료를 선택한 경우가 2배 가량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증상에 따른 상병별 내원 환자의 분포를 살펴 보면 감기, 축농증, 비염, 천식, 중이염 등의 호흡기계 질환이 114예(62.5%)로 가장 많았으며, 복통, 구토, 설사, 소화장애 등의 소화기계 질환이 21예(11.7%), 수면 장애, 이경, Tic, 간질 등의 정신 신경계 질환과 아토피 피부염, 태열 등의 피부 질환

이 각각 19예(각각 10.4%)의 순으로 많았다 (Table 3).

이는 이⁴⁾ 등의 연구에서 허약이 차지하는 비율이 27%로 가장 많았으며, 호흡기 질환과 소화기 질환이 31.6%를 차지하는 결과와 약간 달리 하고 있으나 초진 환자에 따른 분류가 아닌 소아과에 5회 이상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보약이나 허약 등을 이유로 내원한 환자의 경우가 약간은 제외되었을 것이며, 또한 본원에서 통증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소아에게 무통의 치료 방법으로 다용하고 있는 향기요법의 사용이 이러한 질환의 분포에 약간의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하지만 전체 환자 중에서 호흡기 질환과 소화기 질환이 74.2%와 같이 상당수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보건사회연구원⁶⁾의 한방의료이용자의 질병별 분포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50.1%, 순환기계 질환이 9.6%, 소화기계 질환이 6.2%의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것은 소아에게는 어른과는 달리 소아 고유의 생리와 병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낮아 외적으로는 六淫 邪氣에 감염되기 쉽고 내적으로는 脾胃 기능이 약하여 소화기 계통의 손상을 받는 특성으로 인해 항상 脾肺疾患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론¹⁾을 입증해 주고 있다.

동일 증상에 대한 치료 방법(한방, 양방 등)을 살펴보면 내원하게 된 증상을 주소로 양방 치료 후 한방으로 전환한 경우가 117예(64.3%)으로 가장 많았고, 처음부터 한방 치료만을 한 경우가 38예(20.9%), 한방과 양방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가 27예(14.8%)의 순이었다.

동일 증상을 주소로 양방을 이용한 후 한방으로 전환한 사유로는 지속적인 치료에도 효과가 없어서가 42예(35.9%)로 가장 많았고, 소화장애 등의 부작용으로가 31예(26.5%), 양방 치료에 따른

인체내 저항력 저하가 27예(23.1%),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가 5예(4.3%), 양방에서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하여가 4예(3.4%)를 차지하였다 (Table 4).

양방 치료후 한방으로 전환한 사유로 김⁵⁾ 등의 연구에서 치료 효과가 없어서가 63.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호흡기 질환에서의 양방 치료 후 한방으로 전환한 경우가 73.9%로 가장 많았다는 결과는 본 연구에서도 호흡기계 질환 환자 중 73.5%가 양방 치료 후 한방으로 전환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과 일치점을 찾을 수 있었으며, 이것은 양방에서 명백한 효과를 보기 어렵거나 완치가 어려운 질환에서 한방 치료로의 전환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아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질환 중 한방 치료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본 결과 감기, 비염, 축농증 등의 호흡기계에 대한 선호도가 109예(41.6%)로 가장 많았으며,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계에 대한 선호도가 55예(21.0%), 경련성 질환, 수면 장애 등의 정신신경계에 대한 선호도가 50예(19.1%), 아토피 피부염, 태열 등과 같은 피부 질환에 대한 선호도가 24예(9.2%), 발한과다에 대한 선호도가 15예(5.7%), 기타 야뇨증, 마비 증상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9예(3.4%)를 차지하였다 (Table 5).

이러한 결과는 Table 3에서 한방 병원에 내원한 환자의 증상별 분포에서 호흡기계 질환이 62.5%, 소화기계 질환이 11.7%, 정신 신경계 질환이 10.4%, 피부 질환이 10.4%를 차지하였던 결과와 상호 상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양방 치료와 비교하여 한방 치료의 특징으로 생각되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만성적인 질환에 효과가 있다가 36명(36%)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료 속도는 약간 느리나 근본적인 치료라 생각된다

는 경우가 14명(14%), 재발율 저하, 지속적인 치료에도 내성이 약하다로 대답한 경우가 각각 8명(각각 8%), 면역력 증진이 6명(6%) 등의 순이었다 (Table 6).

이러한 결과는 한방 소아과에 내원하는 부모들의 생각이 여전히 한방 치료를 급성적인 경우보다는 만성적인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되었으나 한방 치료를 단순히 보약 위주의 치료로 인식하던 예전과는 달리 근본적인 치료, 면역성 증진 효과, 재발율 저하 등의 치료적인 관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치료적인 관점으로 인식되어 지고 있는 한방 치료 분야 중에서 한방 치료보다 양방치료가 우월하다고 느껴지는 질환에 대한 응답으로는 수술을 요하는 질환이 28명(28%)으로 가장 많았고, 단순 감기가 18명(18%), 염증성 질환이 15명(15%), 종양이 8명(8%), 위급한 상황이 7명(7%) 등의 순으로 차지하였다(Table 7). 이러한 결과는 양방 소아과에 내원하는 소아 환자의 대부분이 발열을 주소증으로 하는 감염성 질환이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며 이는 앞으로 한방 소아과에서 새롭게 개척되어야 하며, 양한방 협진 체계의 필요성이 요구되기도 하는 분야라고 생각되어 진다.

소아에게 한방 치료를 하는 경우 궁금점이나 겪게 되는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서 첫째, 궁금점으로는 한약 재료의 생산지 및 질, 위생상태에 대한 궁금점이 22명(22%)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가의 유무가 18명(18%), 복용 시기가 빠른 경우 아이의 지능 저하가 걱정된다는 경우가 14명(14%), 한약의 부작용 유무가 8명(8%) 등을 차지하였으며(Table 8), 둘째, 문제점으로는 가격이 비싸다가 64예(33.5%)로 가장 많았으며 먹기 힘들다가 53예(27.7%), 즉각적인 효과를 기

대하기 어렵다가 52예(27.2%)의 순으로 많았다 (Table 9).

이러한 응답은 현재 한의계가 겪고 있는 한약 재료의 규격화 및 보관, 유통 상태 등에 대한 관심과도 상관성이 있었으며, 소아에게 한약의 복용 시기가 빠른 경우 지능 저하 등을 야기한다는 통설이 여전히 일반인들에게 통용되고 있다는 문제점 등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점을 보건대 일반인들에게 잘못 인식되어 지고 있는 한의학 전반에 대한 개념의 확립과 지속적인 홍보 등이 요구되어 진다고 볼 수 있다.

한방 치료 결과에 따른 환자의 만족도에서는 만족이 69명(69%)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만족이 19명(19%)의 순으로 많았다(Table 10).

이상과 같이 한방 병원 소아과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이용실태를 살펴본 결과 기존의 한방 치료 영역이 근골격계 질환이나 보약의 이용 목적으로 부각되었던 예전과는 달리 난치성 질환인 알레르기 질환, 피부질환, 정신신경계 질환 등의 다양한 영역으로의 발전 경향을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한방 치료의 유효성에도 불구하고 소아에게 복용시키기 어렵다는 난점과 가격면에서 고가라는 인식 등의 장애 요소 등에 부딪혀 국민들의 일차 의료로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은 협소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증가되고 있는 한방 소아과에 대한 관심 속에서 정확한 진료 영역과 분야별 전문성 및 국민적 홍보 등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학계의 연구·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 론

2001년 7월 2일부터 2001년 11월 31일까지 대전

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소아과에 내원하여 5회 이상 치료를 받은 환자 100예를 대상으로 환자의 성별, 연령, 한방 병원에 내원한 동기와 질병, 동일 증상에 대해 양방 이용과의 관련성 등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성별 발생빈도는 남자가 60명(60%), 여자가 40명(40%)로 남녀의 성비는 1.5 : 1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연령의 분포는 2-4세가 23명(23%), 4-6세가 22명(22%)의 순으로 많았다.

2. 한방 병원에 내원한 동기로는 지속적인 양방 치료로 인한 부작용 및 아이의 면역력 저하가 걱정되어서가 49예(43.8%)로 가장 많았으며, 주위 사람의 권유를 받고 내원한 경우가 37예(33.3%)로 그 다음 순이었다.

3. 증상에 따른 상병별 내원 환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호흡기계 질환이 114예(62.5%)로 가장 많았으며, 소화기계 질환이 21예(11.7%), 신경계 질환과 피부 질환이 각각 19예(각각 10.4%)의 순으로 많았다.

또한 동일 증상에 대한 치료 방법을 살펴보면 양방 치료 후 한방으로 전환한 경우가 117예(64.3%)으로 가장 많았고, 처음부터 한방 치료만을 한 경우가 38예(20.9%), 한방과 양방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가 27예(14.8%)의 순이었다.

4. 동일 증상을 주소로 양방 치료 후 한방으로 전환한 환자들의 전원 사유로는 지속적인 치료에도 효과가 없어서가 42예(35.9%)로 가장 많았고, 소화장애 등의 부작용으로가 31예(26.5%), 양방 치료에 따른 인체내 저항력 저하가 27예(23.1%)의 순으로 많았다.

5. 소아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질환 중 한방 치료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본 결과 호흡기계에 대한 선호도가 109예(41.6%)로 가장 많았으며, 소화기계에 대한 선호도가 55예(21.0%), 정신신경계에 대한 선호도가 50예(19.1%)의 순으로 많았다.

6. 양방 치료와 비교하여 한방 치료의 특징에 대한 응답으로는 만성적인 질환에 효과가 있다 36명(36%)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료 속도는 약간 느리나 근본적인 치료라 생각된다는 경우가 14명(14%), 재발을 저하, 지속적인 치료에도 내성이 약하다로 대답한 경우가 각각 8명(각각 8%)의 순이었다.

7. 여러 질환 중 한방 치료와 비교하여 양방 치료가 우월하다고 느껴지는 질환에 대한 응답으로는 수술을 요하는 질환이 28명(28%)으로 가장 많았고, 단순 감기가 18명(18%), 염증성 질환이 15명(15%), 종양이 8명(8%)의 순으로 많았다.

8. 소아를 한방으로 치료하는 경우 궁금점으로는 한약 재료의 생산지 및 질, 위생상태에 대한 궁금점이 22명(22%)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기간 사용 가능 유무가 18명(18%), 복용 시기가 빠른 경우 아이의 지능 저하가 걱정된다는 경우도 14명(14%)의 순으로 많았다.

9. 소아에게 한방 치료를 하는 경우 겪게 되는 문제점으로는 가격이 비싸다가 64예(33.5%)로 가장 많았으며 먹이기 힘들다가 53예(27.7%),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가 52예(27.2%)의 순으로 많았다.

10. 치료 결과에 따른 환자의 만족도에서는 만

족이 69명(69%)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만족이 19명(19%)의 순으로 많았다.

參 考 文 獻

1. 김덕곤 외 6명 : 한방소아과학 강의록, 서울, 전국 한의과대학 소아과학 교실, 2001, pp. 10-19
2. 李 槌 : 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卷5, p.1615, 1991
3. 김덕곤 외 2명 : 동의소아과 임상실습,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8, p.23
4. 이진용 외 3명 : 소아과 외래환자의 주소증에 대한 고찰,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10, 1996, pp.201-219
5. 김지용 외 2명 : 모 한방병원 내원 환자의 의료이용실태, 대한한의학회지 21, 2000, pp. 359-367
6. 송건용·홍성국 : 한방의료 수요와 공급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 1996: p.75